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美 반도체 업체들, 화웨이 제재 완화 위해 물밑 작업 중 - 소식통들
- ◇ (단독)-부양책 옵션 두고 의견 갈린 ECB 정책입안자들
- ◇ (칼럼)-경제지표에 한번 더 기회 준 연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2020 대통령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행사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이터/카를로 알레그리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2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64.0	1.8%	-4.1%	-4.1%	유로	1.1366	1.4%	-0.9%	-4.4%
100엔 대비	1,079.1	1.3%	-5.9%	-6.9%	엔	107.30	1.2%	2.1%	2.8%
유로 대비	1,316.4	1.0%	-3.0%	0.2%	위안	6.8523	1.0%	0.3%	-5.3%
위안 대비	168.55	1.7%	-4.0%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719.13	2.4%	14.5%	-5.6%
코스피	2,125.62	1.4%	4.1%	-17.3%	나스닥	8,031.71	3.0%	21.0%	-3.9%
코스닥	722.64	0.1%	7.0%	-15.4%	S&P500	2,950.46	2.2%	17.7%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24.73	3.7%	10.0%	-16.2%
국고채 3Y	1.440%	-3.0bp	-37.7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475%	-2.5bp	-40.9bp	-45.9bp	미국채 2Y	1.772%	-7.3bp	-72.6bp	60.7bp
국고채 10Y	1.569%	-2.2bp	-37.9bp	-52.1bp	미국채 10Y	2.059%	-2.5bp	-63.2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7.43	9.4%	26.5%	-24.8%	한국 5Y	30.90	-1.31	-7.17	-13.74
금(현물)	1,398.65	4.3%	9.0%	-1.5%	일본 5Y	21.15	-0.50	-0.64	-3.34
TR상품지수	2,388.83	-0.7%	0.7%	0.0%	중국 5Y	42.03	-7.70	-24.44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6월 24일(월)>

- 특이 일정 없음

<25일(화)>

- 한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15:00)
-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

<26일(수)>

- 한은,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4월 인구동향·5월 국내인구이동(12:00)

<27일(목)>

- 한은,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7:00)

<28일(금)>

-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6월 24일(월)>

- 미국, 5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6월 달러스연은 제조업지수 (23:30)

<25일(화)>

- 일본은행(BOJ) 4월 24-25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08:50)
- 미국, 5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4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2:00)
- 미국, 6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미국, 5월 신규주택판매 (23:00)

<26일(수)>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5월 내구재주문·도소매 재고(21:30)

<27일(목)>

- 일본, 5월 소매판매 (08:50)
- 중국, 5월 산업이익 (10:30)
- 유로존, 6월 기업환경지수·경기체감지수·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8:00)
- 미국, 1분기 기업이익 수정치 (21:30)
- 미국, 1분기 GDP 확정치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5월 잠정주택판매 (23:00)
- 미국, 6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8일(금)>

- 일본, 6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일본, 5월 실업률 (08:30)
- 일본은행(BOJ) 6월 19-20일 회의 정책위원 의견 요약본 공개(08:50)
- 일본, 5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일본, 5월 건축주문·주택착공 (14:00)
-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8:00)
- 미국, 5월 개인소득 (21:30)
- 미국, 6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주 후반에 있을 G20 정상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55-1175 원으로 비교적 좁다.
- 지난주 환율은 20 원 넘게 급락하며 2017년 7월 중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번 주중 환율은 급락에 따른 조정보다는 상·하방이 모두 막히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하지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원화는 이번 주말에 있을 G20 정상회의 및 미-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폭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 이렇듯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양방향 리스크가 대폭 커진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일단 현 수준에서 보폭을 줄일 공산이 크다.
- 글로벌 통화 완화 기대가 자극한 위험 선호 심리에다가 미-중 무역협상 관련 기대까지 버무려지며 원화는 최근 가파른 강세에도 뚜렷한 조정 압력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포지션이 대폭 정리된 만큼 시장 포지션은 가벼워진 상태다.
- 하지만 그 누구도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주중 원화는 방향성 설정을 유보한 채 소극적으로 오르내리면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주간 채권 전망은 건너뛰니다. 양해 바랍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분석)-美 반도체 업체들, 화웨이 제재 완화 위해 물밑 작업 중 - 소식통들

샌프란시스코/워싱턴 (로이터) - 화웨이는 전통적인 정부 로비를 피하고 있지만 퀄컴과 인텔 등 화웨이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화웨이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완화하라고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고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과 자일링스의 고위 임원들이 5월 말 미국 상무부 회의에 참여해 화웨이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이번 제재로 미국 공급업체들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특별한 승인 없이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됐다.

네 명의 소식통들은 퀄컴 또한 이 문제로 상무부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 중 세 명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화웨이가 판매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 등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5G 네트워크 장비와 같이 보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은 "화웨이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가 2018년 부품 구매를 위해 사용한 700억 달러 가운데 110억 달러는 퀄컴,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같은 미국 기업에 돌아갔다.

기업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퀄컴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일반적인 기기를 위해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기업들을 대신하여 미국 정부와 협의를 주선해 제재 영향에 대해 기업들이 브리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지미 굿리치 SIA 글로벌 정책 담당 부사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기술들이 정부 명령 범위에 들어가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이와 같은 견해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미국에 대한 중국 기업의 스파이 의혹,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등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관련 협상이 결렬되며 나타났다.

량화 화웨이 회장은 이달 초 중국에서 기자들에게 화웨이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를 판매하는 구글 또한 계속해서 화웨이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에서 새로운 규칙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규제 요건의 범위와 관련한 문의에 일 상적으로 답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화가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텔, 자일링스, 퀄컴은 언급을 회피했으며 화웨이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앤드류 윌리엄슨 화웨이 대외홍보담당 부사장은 멕시코에서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누구에게도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기업들에 있어 화웨이는 주요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측통들은 미국의 공급업자들이 스파이, 도둑,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돕는 것으로는 보이고 싶지 않지만 좋은 고객을 잃는 것 또한 바라지 않아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다

화웨이의 의사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은 화웨이가 이 문제에 대해 워싱턴에서 전통적인 로비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량 회장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소통 수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소식통 두 명은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전부터 로비 활동을 줄이고 있었다. 작년 화웨이는 대외담당 부회장을 포함한 워싱턴 지사의 직원 5명을 줄였으며 로비 관련 지출을 줄였다.

그러나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혐의에 맞서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화웨이는 미국에서의 어두운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한 런칭페이 화웨이 CEO 인터뷰를 여러 건 진행했으며 미국 주요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싣기도 했다. 애널리

스트들은 화웨이의 이러한 반응은 화웨이에 행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짐 루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사이버전문가는 "화웨이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화웨이는 정말 나쁜 상황에 몰려 있으며 아무도 화웨이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는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상무부에 로비하고 있지 않은 브로드컴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과 화웨이 제재로 올해 매출이 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세계 반도체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상무부는 5월 20일 화웨이가 기존 고객들의 네트워크 및 장비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임시 일반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독)-부양책 옵션 두고 의견 갈린 ECB 정책입안자들

신트라, 포르투갈 (로이터)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시사한 후에도 ECB 내부는 아직 부양책 옵션을 두고 분열된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이 로이터에 밝혔다.

드라기 총재는 18일 ECB 연례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을 경우 ECB는 정책을 다시 완화할 것이라며 지난 정책회의에서 신규 채권 매입, 금리 인하, ECB 정책 가이드라인 변화 등의 방안이 모두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유로 가치와 채권 수익률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라기 총재가 유로 가치 절하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개최된 ECB 연례 심포지엄에서 6명의 소식통들은 ECB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 또한 없다고 전했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신규 자산 매입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으나 회의가 신규 대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장은 6월 통화정책회의 당시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부진한 경제 지표가 계속되는 등 대부분의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나 드라기 총재가 메시지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확실한 입장 변화

실제로 드라기 총재는 18일 연설에서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ECB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혀 부정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행동할 것이라는 6월 연설에서 현저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책입안자들이 드라기 총재가 그의 조치를 시장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7월 회의에서 이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소식통들은 다음 금리 회의 전에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월과 다른 정책적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조치들이 언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ECB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소식통들은 정책입안자들은 ECB의 2조 60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 ECB의 금리 동결 약속,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옵션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정책 메시지를 보내야 하나?

일부는 ECB의 정책 메시지 변화가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두 소식통은 ECB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달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경제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리가 현재 수준 또는 현재 수준 이하로 유지될 것

이라고만 언급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는 것이 ECB 정책 메시지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CB는 금리 인상 시기를 반복해서 미룰 필요 없이 더 오랫동안 가이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은 국가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춰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국채 매입 재개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2014~18년 동안 2조 600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매입한 후 ECB는 이미 포르투갈과 독일 등의 국채 중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ECB가 스스로 정한 한계선에 가깝다.

드라기 총재는 ECB가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소식통은 이는 필요할 경우 발행자 제한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수 소식통들은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타격을 받는 은행들의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초과기준에 대한 비용을 면제하는 계층별 부리제는 복잡성 때문에 이사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한 소식통은 또한 이러한 제도는 ECB의 장기대출 프로그램인 TLTRO III와 결합해 일부 은행이 차익 거래 시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는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ECB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럼)-경제지표에 한번 더 기회 준 연준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욕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강등설에 대한 질문에 내놓은 대답

이다. 파월 의장과 연준 관리들이 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던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이었다.

글로벌 경제 성장 약화 등 금리 인하를 고려할 이유는 있었다.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무역상대국들과 갈등을 고조시켜 준 덕분에 무역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주변 중앙은행들도 더 도비시해졌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전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으면 정책을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있다. 연준은 주가 급등락, 또는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등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까다롭다. 연준의 임무가 시장을 띄우는 것이 아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기 때문이다. 고용 상황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현재 완만해 금리를 어느 방향으로도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올해 초 트레이더들은 이번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FOMC 전날인 18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0%를 넘었다. 금리는 인하되지 않았지만 7월 31일 회의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쪽으로 베팅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FOMC의 자체 전망에서는 연준 정책결정자들 중 올해나 내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거의 절반이 인하를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OMC 성명에서도 '인내심' 문구가 삭제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6주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통화정책 완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물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리들은 경제지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지표에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